

겨울 닭 관리, 온도와 환기가 중요해요!

- 병아리, 2일령까지 34℃ 유지... 큰 닭, 적절한 환기 주의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겨울철 목시 심한 추위에 대비해 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장 관리 등 양계 농가에서 지켜야 할 요령을 제시했다.

닭은 주령(어떤 생물이 그때까지 생존하여 온 시간을 주 단위로 나타내는 용어)에 따라 적절한 사육 온도와 사양 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각 단계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 특히, 병아리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줘야 한다.

용량이 작은 열풍기로 넓은 면적의 온도를 높일 경우 열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닭은 체온이 높은 항온동물로 주변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스스로 체온을 조절한다. 그러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은 늘고 생산성은 줄어든다. 닭장 내의 적정 온도인 20℃를 기준으로, 온도가 1℃ 떨어지면 사료섭취량이 약 1%씩 늘어나고, 10

℃로 내려가면 사료섭취량은 약 10% 늘어난다. 이처럼 닭장이 추우면 사료섭취량이 늘고,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 등이 헛되이 쓰이므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사료비를 줄여야 한다.

밀폐된 상태에서는 호흡을 통해 산소는 줄고 이산화탄소가 늘며, 열풍기로 산소가 많이 소비되며 수증기도 발생한다. 닭통의 유해가스로 사육 환경이 나빠져 생산성은 떨어지고 호흡기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환기를 통해 닭장 안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섯바람을 최소화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닭장 내에 고루 퍼지도록 한다.

또, 폭설로 인해 연료나 사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폭설이 예상되면 미리 사료나 연료량을 파악해 준비한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급수관이 어는 경우에 대비해 닭이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점검한다.

〈참고자료〉

겨울철 닭 사양 관리

■ 겨울철 닭장 관리 사항

- ① 단열: 닭장의 적정한 단열을 유지한다. 사육으로 인하여 파손된 단열재가 있으면 보수한다.
- ② 셋바람: 지붕이나 벽의 공간으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윈치커튼에 구멍이 있으면 막아주고 커튼을 바르게 설치해 뒤틀린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③ 환기: 닭장 내부에 순환 팬을 돌리고 공기를 순환시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분리층을 없애준다.
- ④ 제어기·센서 관리: 온도조절기와 각종 센서 등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 ⑤ 환기량: 주령과 닭장 내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최소 환기량을 산정해 환기한다. **양계**



▲ 병아리 입추(닭을 기르기 위해 양계장에서 병아리를 들여오는 것) 모습

An advertisement for a cleaning service in a chicken farm. The background i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multi-tiered chicken cage system, similar to the one in the previous imag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At the top, it says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We clean with the same heart as the farm owner). Below that, in large, bold, black letters, is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Automatic Cleaning Service).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부성축산

대표 : 이 재 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1-518-7752

010-4000-9023